

2020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정책 모니터링 ‘젠더 렌즈’로 홍보물을 바라보면?

몇 년 전부터 공공기관에서도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정책 홍보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도구로 SNS를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 속 홍보물들은 안녕할까?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되는 추세이지만 최근에도 공공기관 홍보물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발견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대전시 공공기관의 온라인 홍보물을 ‘젠더 렌즈’를 통해 살펴보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해보는 ‘성 주류화 전략 실천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전시 본청과 산하기관, 5개 자치구의 홈페이지 및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발행되는 홍보물에 대해 성차별적 문구나 이미지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9명의 모니터단과 함께 12개 기관¹⁾의 홍보물에 대해 젠더 관점에서 검토하고, 제안사항을 도출했다. 주요하게 개선해야 될 성차별적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성평등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성평등 관점의 홍보물 제작을 위해
교육과 모니터링이 꾸준히 병행되어야 해

길민지_모니터단·『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청년 편집위원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수립 우선되어야 해

김영우_모니터단·충남대학교 여성주의 실천동아리 ‘BIGWAVE’



홍보 대상자와 목적을 명확히 인지하고 만든다면
차별 표현 줄일 수 있어

최지원_모니터단·카이스트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참여한 청년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정책 대상자를
고려한 홍보물 전달체계도 모니터링 할 기회 있었으면 해

김경희_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



젠더 관점을 가진 청년 시각에서 홍보물 살펴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자리였고, 홍보물의 시각적 요소 앞으로도 꾸준히 살필 것

이용균_대전시 홍보담당관

10월 29일에는 대전시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과 이용균 홍보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열고 전반적인 활동결과를 공유했다. 자세한 연구 및 모니터링 내용은 ‘2020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정책 모니터링-젠더 관점에서 살펴본 대전시 공공기관 홍보물’ 보고서²⁾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성 청년의 눈으로 본 '지금', '우리 지역'의 홍보물

대전지역 대학 여성주의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로 구성된 모니터단은 대전시 12개 기관의 홍보물을 점검하고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모니터단 역량 강화와 모니터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 워크숍 외에 젠더 전문가가 참여한 멘토링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5~6월

모니터링 주제 및 대상 기관·매체·홍보물 유형 선정

- ▶ 2017년~2019년 대전시 분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5개 자치구 온라인 홍보물
- ▶ 온라인 매체 유무, 홍보물 양과 질 검토 후 대상 기관 분류(최상~최하) 및 최종 선정
 - 1) 기관 : 최하를 제외한 12개 기관
 - 2) 매체 : 홈페이지 및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 3) 홍보물 유형 : 포스터, 웹진, 브리프, 카드뉴스 등 이미지, 문구가 있는 홍보용 게시물

청년 모니터단 모집 및 구성 5.25~6.11.

- ▶ 참여 의뢰 통한 모집, 총 9인 활동
 - 대전지역 대학 내 여성주의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대상 모집
- ▶ 소속 단체별로 팀 구분(3인 1조)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수립

- ▶ 모니터링의 취지 및 일정, 대상 기관 및 매체·홍보물 유형, 모니터링 주안점 등 작성

분석도구 개발 및 활동보고서 서식 구성

- ▶ 5가지 점검항목 및 포인트, 검토 사항 등 지표 개발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 사회적 약자·성별 대표성 불균형
 - 성차별적 표현, 비하, 외모지상주의
 -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
- ▶ 검토 내용, 개선의견, 최종 제안사항 등 활동보고서 서식 마련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지진발생 대처 안내에도 '얹치마 두른 여성'



7월

모니터단 교육 워크숍 7.15.

- ▶ 성인지 정책 모니터링 이해
- ▶ 성인지적 관점 반영한 홍보물 모니터링 목적 및 필요성
- ▶ 정부 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이해
- ▶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및 활동보고서 작성 안내

모니터링 준비 및 실시

- ▶ 모니터링 지표 숙지, 진행 일정 수립 등 준비
- ▶ 점검 항목에 따라 성차별적 요소 여부 점검

사회적 약자·성별 대표성 불균형

'노인'은 사라진 기자단



8월

모니터단 조별 전문가 멘토링

- ▶ 홍보물 모니터링 주안점 논의, 모니터링 내용 및 개선 의견 추가·보완



9월

모니터단 중간 보고회 및 전문가 멘토링 9.23.

- ▶ 조별 모니터링 진행 현황, 모니터링 내용과 개선의견 최종 점검, 제안사항 추가·정리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

주제와 관계없이 사용되는 '4인 가족' 이미지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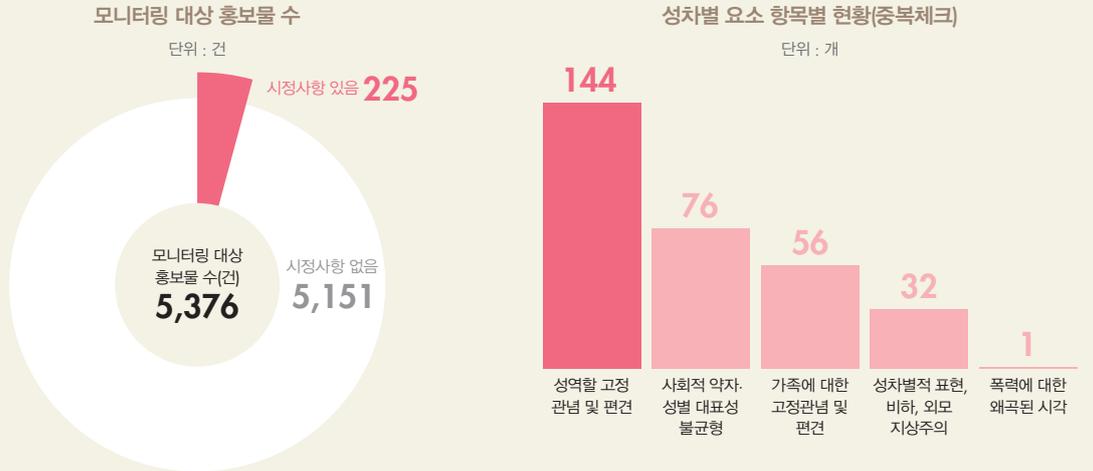
모니터링 최종 결과보고 10.29.

- ▶ 모니터링 활동 내용과 제안사항 등 조별 발표 및 결과 공유



성차별적 요소 발견된 대전시 홍보물 225건, 주로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드러나

대전시 12개 기관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작·배포한 온라인 홍보물 5,376건을 추려 성인지적 관점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225건의 홍보물에서 309개의 성차별적인 요소를 발견했다. 항목별로 보면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이 144개로 가장 많고, '사회적 약자·성별 대표성 불균형'(76개),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56개), '성차별적 표현, 비하, 외모지상주의'(32개),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1개) 순이다.



3) 모니터링 시정 대상 홍보물 수(225건)보다 더 많은 성차별적 요소가 발견된 것은 1건의 홍보물에서 점검항목이 중복 체크되면서 다수의 성차별 요소가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성평등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모니터단이 제안한 성평등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홍보물 점검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마련**
 - ▶ 셀프 점검 도구로 구체적인 예시와 사례가 담긴 '가이드라인' 개발
 - ▶ 홍보물 제작 완료 시 제출 첨부서류로 지표화 된 체크리스트 도입 의무화
- 외부 전문가 참여 활성화**
 - ▶ 검토 과정에 성차별적 요소 분석 및 컨설팅 가능한 외부 젠더 전문가 참여 확대
 - ▶ 여성주의 그래픽 단체나 연대에 소속된 디자이너를 활용한 홍보물 제작
- 모니터링 운영 체계 구축**
 - ▶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으로 모니터단 구성하고 지속적·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 ▶ 온라인 매체 이용해 의견수렴 창구 만드는 등 상시적인 모니터링 통해 환류 기능 강화
- 성평등한 홍보물 제작을 위한 교육 실시**
 - ▶ 홍보물 제작 담당자 대상 정기적 교육과 기관 전체 구성원 대상 홍보물 관련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병행

2020년 제5회 젠더 콜로키움(통합 20회)

밋밋한 사고에 주름을 잡다

젠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작은 공간, 젠더 콜로키움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제 리얼돌(Realdoll), 지배의 에로티시즘
발제자 윤김지영_건국대 몸문화연구소 조교수
일시 2020년 11월 19일(목) 10시 30분
장소 대전세종연구원 2층 대회의실